

내년도 국제 전기자동차 학술대회 (EVS-19)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하며

- 일본의 JEVA와 JSAE 방문결과보고 -

For Successful 19th International Electric Vehicles Symposium (EVS-19), 2002



김 은 태 · 한국자동차공학회 사무국장
Eun-Tae Kim · KSAE General Secretary

지난해 이후 만나는 회원들로부터 학회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소리를 자주들어 오고 있다. 홈페이지가 개통되어 학회의 운영 내용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다거나, 논문집의 질이 크게 높아졌다거나, 새로이 발간된 영문논문집(International Journal of Automotive Technology)에 대한 호의적 반응이나 지부나 지회가 설립되어 지방에 거주하는 회원들의 학회 활동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그동안 우리 학회 회원분들과 임원들이 끊임없이 개선하고 투자해온 노력들이 조금씩 가시적 성과를 맺어온 결실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특히 지난해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과 COEX에서 개최한 "서울 2000 FISITA 학술대회(Seoul 2000 FISITA World Automotive Congress)"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최대 규모의 국제 자동차학술대회로서 383편의 국내외 논문발표와 참가자만 1,428명에 달하는 등 그

성과가 국내 보다 해외에 더 홍보된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 2000 FISITA 학술대회"의 결과는 숫자로 계량화 할 수 없지만 우리 자동차산업과 자동차공학에 많은 직간접 도움이 되었으며 그 일익을 우리 학회가 해냈다는 것 또한 회원들 모두에게 자부심을 느낄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지고 있다.

이어 2002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19회 국제 전기자동차 학술대회(The 19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Electric Vehicles, EVS-19)"가 우리학회 주최로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에서 개최된다. 지난 2000년 제 2회 학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제19회 국제 전기자동차 학술대회" 개최는 지금까지 일본 오사카(EVS-13), 미국 올란도(EVS-14), 벨기에(EVS-15), 중국 북경(EVS-16), 캐나다 몬트리올(EVS-17), 독일 베를린(EVS-18) 등에서 개최되어 오다가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재 전기자동차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인정되어지고 있으며 2003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차메이커에서는 의무판매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이는 전기자동차의 기술력 확보와 함께 기존의 휘발유나 경유자동차와 경쟁하여 가격 경쟁면에서 언제 대중화, 상용화 할 수 있는냐는 문제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술적, 경제

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지만 전기자동차 학술대회를 통해 가장 빠르게 기술을 진일보시키고 대중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EVS-19 행사를 위해서 우리 학회내에 EVS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저는 EVS조직위원회 박심수 위원(고려대학교 교수)와 하회두 위원(한국전기연구원 산업협력부 팀장)과 함께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일본의 JEVA(Japan Electric Vehicle Association)를 방문하여 Noboru Enomoto 전무를 비롯하여 Shoji Tange 이사과 Kunihiko Masunaga 사무국장, Masako Takahashi 과장을 만나 일본에서 1996년도에 개최한 EVS-13에 대한 각종자료를 입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개최되는 EVS-19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번 입수자료로 EVS-19 개최시 일본의 전기자동차 관련업체의 주소록과 행사진행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며 일본을 대표하여 JEVA에서는 필요시 일본내 업체들의 EVS-19 참가를 적극 독려해 주겠다는 희망적인 일본업체의 참여방안도 논의하였다.

JEVA는 1976년 12월에 설립되어 현재 128사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29명의 직원이 일본의 전기자동차 기술확보와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있는 정부지원 단체로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전기자동차만의 전문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는 없으며 동경시내 도라노미지역의 비싼 땅에 전기자동차 상설전시관을 운영하며 대국민 홍보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JEVA의 방문으로 인접국가인 일본의 전기자동차 기술이 EVS-19 행사를 통하여 논문발표 및 전시참가에 많은 비중이 예상되어 EVS-19의 성공적 개최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학회와 대 일본 파트너로서 가깝게 지내온 JSAE(Jap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Inc.)를 방문하여 Sekio Higuchi 상무와 Yoshiyuki Inatsugi 사무국장,

Kyozo Katori 과장, Hiro Ishimaru 과장 및 Takako Itoh 씨를 만나 지난해 “서울 2000 FISITA 학술대회”에서 많은 일본인이 참가한데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였으며 내년도 EVS-19 행사 또한 JSAE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등 앞으로 우리학회와 JSAE와의 상호 교류와 정보교환, 국제학술 행사 지원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그동안 우리 학회는 자동차기술핸드북 편찬에 JSAE와 긴밀히 협조하여 자동차공학과 기술인에게 큰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자동차 기술정보 교환이 활발해 지리라 생각되어 이번 방문이 아주 유효하고 상호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 도요다 자동차의 K-Class 전기자동차

1990년대 하반기부터 전 세계적으로 합병과 흡수가 비번하게 발생하고 경쟁과 협력관계가 빠르게 변하고있어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도 그 예외는 아니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어렵고 혼란한 현황 속에서는 기술력과 경쟁력만이 스스로를 지켜줄 수있으며 이는 EVS와 같은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흡수하여 자체의 힘을 키우는 길이라 생각된다.

다시 한번 2000년에 이어 2002년도에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 한국자동차공학회의 회원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우리나라 자동차공학과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었으며 이번 일본방문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김은태 사무국장 : ksae1@ksae.org〉



현재의 세계 제조산업의 경쟁에서 이기는 업체는 누가 1등이 되느냐, 누가 다음세대의 기술력을 확보한 업체로서 그 성가를 이룰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된다. 특히 자동차산업은